

보성녹차 국내·글로벌 시장 동시 공략

세계 최대 쇼핑몰 '아마존'
입점 물량 29만달러 상차
전문기업 티코리아와 협약
차 제품 4종 올 여름 출시

보성 녹차가 국내 프리미엄 음료 시장과 온라인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녹차가 세계 최대 온라인쇼핑몰 '아마존'에 입점한다.

보성군은 이날 군청 광장에서 아마존에 입점할 1차 수출 물량 29만달러 상당의 보성녹차 상차식을 했다.

앞으로 연간 36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마켓, 텍사스 프리미엄 마켓 등 유기농 프리미엄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 진입도 계획하고 있다.

아마존 진출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준비했으며, 지난해 6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시장개척단이 미국 LA를 방문, 아마존협력업체 'Kreassive LL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서 보성군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션브리즈'(Ocean Breeze)라는 신상품을 개발했다. '오션브리즈'는 미주와 유럽 정서에 맞는 상표 디자인에 100% 유기농 녹차(국제유기인증), 브랜딩 차, 가루녹차 등을 활용해 만든 프리미엄 상품으로, 글로벌 녹차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적용되는 국제유기인증 제도를 분석, 현재 12개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오션브리즈에 사용된 차(茶)는 모두 국제유기인증 보유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하는 '보성녹차'의 상차식이 3일 보성군청 광장에서 열렸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다.

아마존은 미국·캐나다 최대 규모 인터넷 종합쇼핑몰로 지난 2018년 구글과 애플을 제치고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다.

미주 전체 가구 중 약 50%가 가입고객이며, 소비재 온라인 판매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차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보성 차 세계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차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녹차수도 보성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국내 프리미엄 음료시장 점유

율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보성군은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보성차생산자조합, ㈜티코리아와 제품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보성군은 지역브랜드를 제공하고, 전남도농업기술원(보성차산업연구소)은 제품 개발 및 기술 지원을, 보성차생산자조합은 유기농 차를 공급한다.

㈜티코리아는 개발된 제품의 출시와 유통, 홍보 판촉 활동을 맡는다.

㈜티코리아는 스리랑카 최대 홍차 유통회사인 아크바(AKBAR) 차를 국내 백화점, 프랜차이즈, 마트·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 유통하는 차 전문기업이다.

이들 협약 기관은 보성차를 활용한 제품 4종을 개발해 올 여름 국내 음료시장에 내놓는다는 목표다.

건강음료와 간편음료를 선호하는 젊은 층, 홈카페 마니아층을 겨냥해 유기농 보성녹차와 1등급 우유를 넣은 녹차 밀크티, 녹차 스틱분말, 벌크티믹스, 액상베이즈 녹차 등 음료와 간편 차(茶)제품 4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정열 티코리아 대표는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의 브랜드를 달고 전남도 차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건강음료를 담아 전국에 유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수입대체 국산체리 생산 메카 된다

국내 소비량 급증 신소득 작물
재배면적 30ha 현장교육 강화

곡성군이 수입 대체 과수로 체리를 특화 육성해 국내산 체리 생산 메카로 거듭난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은 지난 2017년부터 체리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재배면적 30ha로 국내에서는 경주시(60ha) 다음으로 체리 주요 산지로 부상했다.

곡성군이 체리 육성에 적극 나선 것은 신소득 작물로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과일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수입산 과일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체리의 수입량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0 농업전망'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87t이었던 체리 수입량은 지난해 1만5862t으로 14년 사이에 16배 급증했다. 우리 국민의 체리 사랑은 2017년 국제체리심포지움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심포지움 자료에는 지난 2014~2015년 미국산 체리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한국은 중국보다 높은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산 체리 점유율은 지난 2018년 기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리 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과일 구매력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이 낮아진 점, 기능성과 맛이 뛰어나고 껍질을 꺾는 번거로움이 없는 편이성도 매력

적이라는 것이다.

곡성군은 체리 특화단지 운영과 함께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재배기술 교육,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연 8회 이상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체리농업인연구회를 운영,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조현자 곡성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체리 소비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득 과수로써 국내산 체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품질 좋은 곡성체리를 생산해 지역 대표 소득과수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보성군, 조성농공단지 분양률 100% 달성

(㈜진성바이오 등 3개 업체와 126억 투자협약)

보성 조성농공단지 분양률이 100%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난 28일 ㈜진성바이오 등 3개 기업과 조성농공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로 보성지역 농공단지에는 100% 분양률을 달성했다.

협약에 따라 친환경 생분해 필름을 생산하는 ㈜진성바이오텔을 비롯해 플라스틱 성형용기, 크릴 오일 등을 제조하는 3개 기업이 조성농공단지에서 동지를 뜬다. 투자 규모는 약 126억 원 규모이며, 40여 개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8년 넘게 분양되지 않던 조성농공단지의 투자 유치에 전력, 민선 7기 들어 350억원 가까운 투자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케이밥과 ㈜인우당이 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데 이어 이번 126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지역산업이 활력을 되찾았다. 오는 5월에는 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예정돼 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민선 7기 들어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해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임운덕(왼쪽 세번째) 구례교육장과 임현수(네번째) 지리산씨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27일 구례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교육청 제공>

구례교육청·지리산씨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업무협약

구례교육지원청과 지리산씨협동조합은 지난 27일 교육지원청 아이사랑카페에서 구례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0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으로, 지역의 생태·환경, 역사·통일,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지역 학생들이 배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역 우수 강사 양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함께하기로 했다.

임현수 지리산씨협동조합 이사장은 "민·관이 함께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구례 학생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코로나19 여파 모든 군민에 무료 책배달 서비스

고흥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문화시설이 휴관한 데다 외출도 자제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책배달 서비스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읽고 싶은 도서를 신청하면 택배를 통해 가정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가정독서 지원서비스다. 1인당 최대 3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자책·오디오북 대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PC나 모바일 기기

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3600여종의 전자책과 300여종의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다. 고흥군은 올해 2000여만원을 투입해 디지털 장서를 확충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책배달 서비스는 당초 독서소의계중(임산부·장애인·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라며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 휴관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